



(1) 국토 경비대의 신년 메시지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꽉꽉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과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실질소득 감소와 경기침체 속에 맞는 기축(己丑)년 새해는 서민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는 일, 다시 일어서서 뛰어야 한다. 2009년 새해를 맞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쪽을 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연재한다.

내일참 7693
김정우

2009년 <부자(富者)>

온전한 힘으로 어려운 나날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

고마워하는 나날자!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밸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문의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어두운 곳 빛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팔쇠
2009년 기축년(己
丑年) 새 아침을

맞아 삼가 새해 인사드리며, 울 한해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
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지난해 사회 구석구석을 찾았던
다니며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됐던 '나
팔쇠'는 새해에도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들
의 벗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
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해에도 밝고 희망찬 소식과
감동이 넘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
하는 '나팔쇠'가 될 것을 독자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 '나팔쇠'가 언제 어
디서나 정의와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
여주는 '쌍나팔'을 온누리에 울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1부

가거도에서 “파이팅 대한민국!” 독도에서

최서단 가거도 레이더 기지 박성철 경위

“지난해에는 기름값 폭등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기름값과 불법 조업 걱정없이 항상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어민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139km, 뱃길로 233km 떨어진 국토 최서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이곳에서 24시간 서남해안 해역을 물살틈없이 감시하는 목포경찰서 가거도 레이더기지장 박성철(40) 경위가 전하는 신년 메시지다.

목포에서 페스션으로 4시간 30분을 내달려야 도착할 정도로 오지인 가거도에는 박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

5명과 전투경찰대원 44명(레이더 기지 24명·경비소대 20명)이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국토 최서단 해역을 지켜내고 있다. 어려운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부심만큼은 남다르다.

면적 9.6㎢(서울 여의도 3배 크기)의 가거도와 이를 중심으로 한 반경 45km의 우리 영해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거도 부근 해상은 중국 어선의 출몰이 잦고 북한 상선의 이동경로와도 맞닿아 있다. 안보상 중요성으로 따지면 독도 못지않다.

최근에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더하다.

박 경위는 “최근 중국 어선이 부쩍 많아지면서 풍랑주의보 등이 발효될 경우 많게는 500여척의 중국 어선이 피항해 오기도 한다”며 “일본의 도발로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영해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가거도 독도 못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기 터에 어민들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새해에는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서남해안에서 풍랑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철통 경계를 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경위는 구립 31일 자정 서울 보신각종을 올리는 국민대표 11명에 포함돼 2009년 희망을 알리는 보신각종을 썼다.



국토의 최서단 해역을 지키는 목포경찰서 가거도 레이더기지 대원들이 2009년 새해 건승을 기원하는 학이팅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박성철 경위.

빈집 방화 추정 잇단 불... 모방범죄 확산 우려

주민 불안 속 본격 수사

광주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빈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북구와 서구 지역에서도 잇따라 빈집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방범죄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빈집 화재의 특성상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았던 경찰도 방화성 빈집 화재 사건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구립 31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 빈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구립 30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빈집에서도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두 건의 화재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고, 특별한 발화요인이 없는 점으로 미뤄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는 지난해 12월 들어서만 구립 25일에 2건, 23일 3건, 28일 1건, 30일 1건, 31일 1건 등 총 8건의 방화의심 화재가 났고, 이중 6건이 동구 학동8거리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발생했다.

방화의심 화재가 잇따르면서 구청,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방범순찰 활동

을 강화하고, 소방당국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학동8거리 재개발지역 시행사인 광주·전남주택공사는 조만간 외벽설치를 통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날씨가 추위지면서 빈집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나 노숙자들의 임시거처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 화재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다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주자나 노숙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최동단 독도 경비대장 박병언 경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동해의 새해 첫 일출을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됩니다. 어려운 경기 때문에 모두 힘들어 하는 국민께 조국의 최동단을 지켜낸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영토 수호에 나설 것입니다.”

2009년 첫 독도경비대장으로 독도에 입도(入島)하는 박병언(33) 경위의 새해 다짐이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경찰청이 사상 처음으로 공모한 독도경비대장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전남경찰청 기동대 행정계장으로 근무했던 박 경위는 ‘공모를 통한 1호 독도경비대장이라는 명예는 영원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지원했다.

당시 3.6대 1의 경쟁률을 놓고 선발된 박 경위는 그동안 울릉도 소대에서 근무하다 오는 5일 독도에 들어가 3개월간의 독도경비대장 임무를 맡게 된다.

4개월간 함께 울릉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경찰관 3명, 대원 37명과 함께 독도에 들어가는 박 경위는 이를 과 3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국토 최동단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 레이더 감시와 주간 경계근무·야간 관측 투시근무 등 24시간 철동경계를 통해 일본의 영토야욕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도 있다. 겨울철 독도는 사실상 ‘고립무원’이 되기 때문이

다. 해상 날씨 터에 모든 여객선이 끊겨 한번 입도하게 되면 사실상 외부와는 단절된다. 겨울철 대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

그래서 박 경위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다. 철통 경계를 위해서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중이다. 특히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대비해 나름대로 깜짝 이벤트도 준비중이다.

박 경위는 “저와 대원들이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독도를 지켜낼 것”이라며 “새해에는 어려운 경기 터에 걱정도 많겠지만, 독도는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에 전념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2009년 첫 독도경비대장으로 부임하는 박병언(맨 앞)가 독도에서 함께 근무할 울릉도 소대원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구립 31일 열린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총선기간 이전 열린 당원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내용으로 진행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비당원 참석에 대한 위법여부를 질문한 점 등으로 미뤄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목숨 건 귀순

북 일가족 4명 나무선박 타고 3시간 사투

북한 일가족 4명이 구립 30일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립 31일 용진군과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3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용진군 대연평도 동쪽 13.4km 해상에 서 2t급 나무선박에 탄 채 해군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날 자정께 연평도에 도착, 기초조사를 받은 뒤 현재 대연평도에 머무르고 있다.

발견 당시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아들 C씨와 며느리 D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족은 30일 오후 7시35분께 황해도 해주시에서 목선을 타고 출발, 3시간여 만에 한국 수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당국은 대연평도에 있는 귀순 가족과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인천항으로 예인,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謹賀新年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강점(금남공원점)
(062) 227-9970